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외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일수	1774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11일 금요일	Issue No.	1774
		Date	Dec. 19, 1969: Fri.

## 대외원조법안, 국부공군에의 전투기원조제외, 상원이 수정안 승인

(워싱턴 12월18일 밤, 에이피) 상원은 18일, 울부타이우턴주당상원의원이 제출한 대외원조법안 합의 수정안을 찬성 62, 반대 28이라는 예상외의 대차로서 가결하였다. 울부타이우정안은 승인을 얻고있지만 대외원조계획을 예산안으로 타어버리는것으로, 이에의해서 문제가 되어있는 국부에대한 젯트엔진우기의 동맹예산 5천4백90만불은 제외되게된다. 마침예산위원회에서는 양원 합동회의에서의 심의예외에 국부군사원조예산이 부활될것이라고 기대하고있었는데, 회의 위원회에서 결국, 국부관계각각이 한국으로 5천만불을 제외한 총액 19억7천만불이 승인되었다. 15%의 사회부사보장금부증액을 포함하는 세계개혁법안도 양원회의에서 부활되고있으며, 오늘밤에는 하원안이 제안될 예정. 상야양원에서는 일방에서 동원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이지 예산안의 심의에 본주이다. 오늘의 법안은 상원에서는 (1) 노동성, 후생교육성 예산 2백14억불 (2) 운수성예산 67억7천만불 (조용속 젯트기 계획을 포함)이며, 또 양원회의 위원회에서는, 마오스내지 라이에 주류의 미지상군예산을 제외한다는 상원에서의 부대조건부로 6백98억불의 국방예산이 승인되었다. 닉슨대통령은 국외유역의원예대해서 서한을 보내고, "정치적인 인기의 면에서 어떠한 고등을 입더라도, 연방지출을 억제하는 세수를 유지하는 방향에 향해서 노력하기로 오소하였다. 민주당, 공화당수뇌부는 20일밤까지에 69년포국회의 심의종료를 희망하고있는데, 양원회의에서의 심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내주에 넘어가게될것으로 본다.

## 일본에 국동안전의 책임 있다 닉슨대통령이 설명

(워싱턴 12월19일 밤, AP) 닉슨대통령은 17일, 스카이웨이공화당상원내무부동 상원공작당공부 13명을 주시외에 요청하고, 외교정책에대해서 설명하였다. 정부속에서의라면, 이주시외에서 닉슨 대통령은 "일본, 다오민이 서쪽과 일본을 포함하는 세계전체에 적용될것이라고 믿고, 특히 일본이 오기나와 반공주의 책임을 강요하여야만하고 강요하였다고한다. 이것은 일부의원들로부터 반공주의 국동의 안전에대해서 의문이 나온것에대해서 대답한것이라고하며, 닉슨대통령은 공중성명이 일본의 책임을 명기하고있으며, 사면수상에도 그 결의가있다고 대답하였다고한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 구라파에 일대 전환기 동서 독일이 회담의 방향으로

(본 12월19일밤 공동) 동독의 울부리히 국가평의회장이 18일, 서독의 하이네만대통령에 친서를 보낸것으로, 동서양독일의 라협이 실현하지안나하는 전태가 급속히 높아졌다. 친서의 내용은 명백이 되지안했는데, 라협에대해서 무슨 요청을한것은 올림업다코보고, 본정제는 긴장하고 성과를 주시하고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후의 구라파에 큰 전환기를 가져오게될것이다. 서독의 부덴스 수상은 10월말의 성립과 동시에 소련 동구와의 회담을 제창하고, 동독에대해서도 "두개의 독일" 존재를 인정안후에, 무력분행사건에대해서 정부간 교섭을 시작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때문에 급일초 모스크바에서 일사외교약제국수뇌회의가 열렸는데, 이회의는 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현실적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독과의 회담개시에 희망을 보였다. 여래까지의 경위해보아 동독이 무조건으로 라협에 응하리라하는 생각되지안코, 친서에서 서독정부가 전독일을 대표하는 유입의 정통정부라는 주장을 취소할것, 현존국경의 승인, 서독 국내의 해병기의 제거등을 조건으로 무력분행사, 제한에대해서 교섭하여도조라 라고 시사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동독은 국경승인요구를 교섭의 과정에서 강력히 추진할것으로보이며, 양자의 교환으로 당면국정은 면치못하더라도, 교섭은 여하한 개시될 가능성이 강하다.

## 대중공무역제한을 완화 제3국무역등에서 이국무성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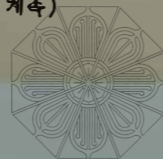
(워싱턴 12월19일밤, 에이피) 국무성은 19일, 중공과의 비전물자의 통상제한완화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결과 (1) 특히 중공제라고 인정되는 상품의 제3국무역에 종사하고있는 미국상사, 그리고 재외의 미국계소회사에대한 외국물자규제통제조령에의한 무역제한의 미완을 철폐한다. (2) 중공으로부터의 비영리수입에대한 최대한 배품목의 제한을 철폐, 또 같은 수입은 여개의 손으로 가지고들어와야한다는 규정도 폐지한다. 동의 조치가 22일부터 실시된다. 재부성에 의하면, 현재 중공의 대외수출입액은 추정 각 10억불이다.

## 북비에트남의 투지는 강하다 하노이 방문후 이-튼시 담화

(동경 12월18일밤, 에이피) 하노이를 방문한 트리부랜드의 실업가 사이러스.이-튼시는 18일 동경에서 "미국은 북비에트남이 패복하였거나 의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비에트남은 전쟁을 종결하는데에는 찬성이나, 어떠한 시간이걸리더라도 싸울 생각이다. 환.반.돈 수상을 위시하여 내가 만난 북비에트남수뇌는, 미국이 간접적으로 또는 남비에트남정권의 해 공의 원조를 통해서 전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미국은 더 현실적으로 상량판단을해야한다. 미국은 비에트남전쟁종결의 조건을 제출하여야할 것이며, 라국의 끝대로 대처시킬 계획을 제출하여서는안된다" 라고 이-튼시는 동서 양권의 지도자가 도의하는 장소인 "파구어윌렛회의" 의 주최자로서 말하였다.

## 파리화평회담에 북비에트남 대표 또 결석

(파리 12월18일밤, 에이피) 18일의 파리화평회담에서 스안.도이 북비에트남수석대표는, 집주에이어 회담을 기권하였다. 이것에대해서 북비에트남수석대표대리는 "회담을 지연시키는것은 아무 이익이 안된다" 라고 계속하여 북비에트남측의 "회담에 진심으로 나오는 태도"를 요청하였다.



(제2편으로부터 계속)

이에대해서 북비에트남측은 2주일전 사임한 탕지전수석대표의 후임을 임명하려고하지안는 니슨 대통령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파리회담은 내주에는 크리스마스도 휴회가되고, 차회에는 12월 30일의 예정이다.

## 스이즈 운하-작전에서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

(12월18일 에이피 송함) 카이로방송에서 에지프드(애랍연합) 군사령부가 발표한바에의하면, 18일 새벽 에지프드보병부대는 스이즈운하를 도하여서 히스라엘군진지를 공격, 랭크 1대, 장갑차 2대를 파괴하였다. 이스라엘측은 공격은 인정하고있는데, 랭크등 손해는 업섯다고 말하고있다. 소련공산당기권지 푸라우다지에 게재된 문평은, 미국의 새로운 중동화평제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대해 최초로 에지프드, 이어 올단, 시리아와 회담교섭을 하라는 미국제안은, 해랍각국에 개개별별의 해결을 강요하고, 애랍제국을 분열시키고, 약체되시키려는것이다" 라고 말하고있다.

## 명년 -월초에 호노루루에서 회의 제3차 철병계획을 도의

(워싱턴 12월16일밤, 공동) 레아드미국방장관은 16일의 기자회견에서, 내년1월2일경에 남비에트남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방문에는 윌러 통합참모본부의장이 동행한다. 이것은 니슨 대통령의 명령에의한것으로, 대통령이 제3차철병계획의 기초로하고있는 북비에트남군의 침투수준을 위시하여, 군사정세전반에대해서 검토한다. 레아드장관의 보고는, 제3차철병의 원전실시에 승인을하는가 안하는가만이 아니고, 제4차이항의 철병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될것이다. 또 동장관은 비에트남방문에앞서, 1월초 하와이에서 군부수뇌회의를열고, 제3차철병계획의 구체적실시를 입안, 철의대상이 되는 부대를 결정한다고 말하였다.

## 남비에트남 정부군의 랑주병이 증가 관계자의 두통거리

(워싱턴 12월 17일밤, 에이피) 비에트남화평회담에서서 제2의 문제라고보이는 남비에트남군의 랑주병의 율이 9월의 천명중 9명으로부터 10월에는 천명중 10명으로 증가되고, 관계자의 두통거리가되어있다. 남비에트남군병력은 백만명이상이기때문에, 실수로하면, 약천명이 매달 랑주하고있는 계산이 된다. 레아드국방장관은 최근 상원의외교위원회에서서 증언에서 "비에트남화평회담에서서서 제1의 문제는 지도층의 양성이며, 제2는 랑주병이다. 랑주는 주로 출정병사들이 가족과 적절한 접촉을갖지못하기때문에 일어나는것으로, 랑주병의 뒤를 따라보면, 대체가 가정에 들어와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 소련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최소 최고회의 제7회기에서 발표

(모스크바 12월17일밤, 공동) 제7회소련최고회의제7회기는 16일 크레믈린궁전에서 열려, 1970년5 국가총예산은 천4백45억 루블로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국방예산은 백79억 루블로되어있으며, 69년도 국방예산에 비교해서 2억 루블의 증가로 나타난다. 국방비의 증가율은 64년부터 65년에걸쳐서 삭감이 잇섯것을 제외하면, 이 10년간 최소의 증가율이다. 금년의 국방비도 작년도에 비교해서 0.3% 감소하고있는데, 내년도예산은 그보다도 더 0.8% 감소, 그 감소율은 일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지적된다. 그태도 금년의 접에서는 정시최고기록을 한것으로 소련의 국방력충실의 방향에 변함이 업다코보인다.

# 미국최대의 지하범죄조직 범인 처포 감부 5+5명을 일제히 처포

(뉴욕 12월 17일 밤 동등) 미국최대의 지하범죄조직 "마피아"의 최고지도자 사이몬. 데카발칸테 (58세)를 포함하는 동조직의 감부 55명이, 16일 뉴저지주 뉴워.크등 각지에서 일제히 체포되어 진미국에 큰 회제를 일으키고있다. "마피아"는 뉴저지, 뉴욕등 동부각주에 강력한 지하조직을 가지고, 두목인 데카발칸테 밑에 약 5천명의 부하가있어서, 도박행위만으로도 일년간에 2천만불의 수익을 내고있었다. 이외에 도둑, 협박, 강도, 권력의 오직관계등에서 버는 수익은 배석불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른다고하며, 이날 체포된 55명전원의 기소할만한 범죄사범장관도 "미국역사상 최대의 노름조직" 이라고 평하고있다. "마피아"는 뉴저지주의 정치나 경찰에 혼연한 세력을 가지고, 뉴욕주에서도 수도국장까지 한페에 끼여있었던것이 판명되고있으며,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강대조직내의 살인등 연방.주정부관리위의 오직관계에도 미칠것이라고보고있다.

## 홍콩 소련 관계 복잡

### 소련 반모택동 지하조직 활용

(홍콩통신) 홍콩에 이번 소련의 오퍼레이션 바이칼, 하바로스크의 두척이 기항하였다. 우라디보스 유크로부터 왔다는것이며, 타고있던것은 관공재과 휴가여행중의 모범노동자 뿐이었다고한다. 이들 소련인은 홍콩에서 중국에 관계있는것만을 사고 사진을 찍고있었다. 그들은 또 광주부변의 인민공사로부터의 물품을 홍콩에 운반하는 장크의 선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있었다. 그들은 실은 관공재이나 휴가노동자를 가장한 소련의 중국전문가도, 홍콩으로부터의 반모택동공작의 사명을 띠고있던것이다. 중.소관계는 고스이긴, 주은래수상이 지난 9월북경공항에서 밀담하고 북경에서 국경 회담이 시작된이래, 어느정도 긴장완화가 보여 왔는데, 주은래수상의 소위 "1만년 사상전쟁" 은 여전히 활발하다. 소련측에서 이 사상전쟁을 수행하고있는것은 스스로서기도, 스스로서기는 모스크바에서 망명중의 임평의신중국공산당운동을 지원하고있는데, 임평이 만든 선전문과 문서는 현재 북경이나 오남, 관동양자에 나와있다. 이외에 산동성에는 비밀방송국이 있어서, 린표를 타도하라고 호소하고있다. 모택동.린표측에서는 이들의 반대공작의 거점은 홍콩이라고보고있는데, 홍콩의 중국계4지는 지난 6월 10일 보도한바에의하면, 홍콩에는 실제에는 공산주의지하기구가 존재하고있다고한다. 이지하기구는 1966년 창설된것으로, 홍콩내에 많은 하부층을 쥐고있다. 그중의 하나인 "중국공산당의 마.크스.레닌주의자동지회"는 "전두강령" 속에서 모택동 반역자임이가 중공중앙위의 이론으로 낸 모든 명령은 무효이며, 소련과 형제당에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여야한다고 믿고있다. 홍콩의 공산당은 급변초이래 모택동주의자의 지도하에 들어가있는데, 당은 "머리없는 만은 용" 같이 분열되어있다. 북경은 이것을 하나도할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아직 실시되지안고있다.

## 강순근씨의 금혼식 잔치 성대

외이아외에서 유지로 씨.피.씨.파인애농장에서 다년간 감독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수년전에 인퇴하신 강순근씨는 지난주일 결혼 50주년이라는 금혼식을 마치하였는데, 이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4년 1남의 5남매가 정성을 합하여, 금혼식잔치를 지난 토요일(12월 13일)에 외이키키의 "하우스.어브.홍" 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5백명의 친지가 모인 가운데, 금혼식예식은 외이아외교회의 계목사의 기도도 시작되던 것은 9시 중독순식사후에 할라.함부용소에서 홀로 추고, 김영기씨가 래력.인사소개를하고, 재미있는중 뜻이났다.

